

은퇴노인의 도서관 이용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A Narrative Inquiry on the Retired Elderly Person's Library Use Experience

이호신 (Hosin Lee)**

초 록

이 연구는 클랜디닌과 코넬리가 제안한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활용하여 은퇴 노인들의 도서관 이용 경험을 탐구한 것이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은퇴노인들의 삶에 가져다 준 변화의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이 삶에 가져다주는 의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서울 시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세 사람의 은퇴 노인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인터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텍스트를 구성하였다. 현장텍스트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는 소설, 에세이, 편지 형식의 연구텍스트로 재구성되었다. 이들의 도서관 이용 경험은 각각 규칙적인 생활을 위한 거점, 재미와 활력, 새로운 꿈꾸기를 위한 보물창고, 노년을 견디는 위안의 원천으로 해석되었다. 책읽기를 통한 건강한 삶에의 지향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의 결과는 공공도서관의 노인 이용자에 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유용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d the retired elderly person's experience of library using the narrative inquiry method proposed by Clandinin and Cornelly. I intended to grasp the details of the several changes that library use brings to the lives. It was also to examine the meanings of the experiences for their lives. For this purpose, three elderly retirees using public libraries in Seoul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I interviewed their experiences and constructed field text from interview. Based on the field text, the story of the participants was reconstructed into research text which is form of novels, essays, and letters. Their experience in using libraries was interpreted as a source of regular life, fun and vitality, a treasure house for dreaming new life, a source of consolation to endure old age. And I found some common points within their narrative that they seek for a healthy life through reading book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ful for expanding the understanding of the public library's elderly users an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service improvement.

키워드: 공공도서관, 내러티브 탐구, 은퇴노인, 도서관 이용 경험, 질적 연구
public library, narrative inquiry, retired elderly person, library use experience, qualitative research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8019523).

**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조교수(leehs@hansung.ac.kr)

■ 논문접수일자: 2019년 2월 18일 ■ 최초심사일자: 2019년 3월 14일 ■ 게재확정일자: 2019년 3월 24일
■ 정보관리학회지, 36(1), 215-246, 2019. [http://dx.doi.org/10.3743/KOSIM.2019.36.1.215]

1. 여는 말

우리 사회는 최근 급속도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로 분류하는 데, 우리 사회의 고령화사회의 진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15-64세까지의 생산가능 인구 100명 당 65세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율은 2020년 22%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1975년의 5.9%의 4배에 근접하는 수치이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크고 작은 사회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현업에서 은퇴한 퇴직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쉽사리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사회적인 변화의 여파는 도서관 현장의 풍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공도서관 열람실에서 하루 종일을 소일하는 은퇴한 노인들과 마주하는 일이 이제는 결코 드물지 않은 일이 되었다. 은퇴 후의 남은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내면서 다양한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이제 도서관 이용의 커다란 한 축을 구성하면서, 도서관이라는 장소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 도서관들은 늘어나는 노인층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대활자본이나 돋보기를 열람실 내에 비치하거나 은퇴 후의 생활과 관련된 문화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노인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서 부심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입장에서는 노인층의 요구를 수용한 맞춤형 서비스의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형편이다. 이런 현실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도서관 이용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그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은 어떤 계기와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어떤 자료와 시설, 서비스를 주로 활용하는 지, 도서관 이용은 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과 가치를 제공하는 지에 대한 세부적인 파악은 이제 겨우 걸음마를 떼고 있는 형편이다.

도서관 서비스의 궁극적인 효과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행복하도록 만드는 데에 있을 것이다. 도서관 이용이 삶에 가져다 준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대강의 윤곽을 파악하는 것은 그래서 도서관 서비스의 궁극적인 효과를 가늠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은퇴 노인들의 도서관 이용 경험을 질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은퇴노인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이 이들의 삶에 가져다 준 변화의 구체적인 윤곽과 모습을 그려보기 위한 것이다.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이 아니라, 서비스 수혜자의 입장에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가져다 준 변화의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이 삶에 가져다 주는 의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의 경험 속에는 우리 사회와 도서관의 다차원적이고 풍부한 디테일들이 입체적인 형상으로 담겨져 있다. 다른 여러 활동과 공간을 제치고 이들이 도서관을 생활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도서관에서 주로 이용하는 자료와 시설, 서비스는 무엇이고, 도서관 이용을 통해서 얻게 된 편익은 무엇이고, 도서관 이용이 이들의 삶에 궁극적으로

제공하는 가치와 의미는 무엇인가를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다차원적이고 입체적인 형상을 통해서 은퇴 노인들의 도서관 이용 경험을 보다 심층적이고, 연속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수행하는 경험에 대한 탐구는 경험의 의미 자체를 일반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이용 경험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함으로써, 도서관이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를 다시 한 번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2.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2.1 노인층의 도서관 이용에 관한 연구

도서관 서비스에서 노인층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하였다. 고령화사회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급부상된 최근에는 비교적 다양한 주제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을 가장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이진영(1998)의 연구이다. 이진영은 해외 공공도서관들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김선호(2002)는 공공도서관의 노인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국내·외의 정책과 지침을 조사·분석하여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개발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아울러 공공도서관의 노인을 위한

인터페이스의 개발의 필요성(2003)과 노인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의 구체적인 내역(2004)들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박옥화(2007)는 대전지역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고령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공공도서관에서의 이용 특성,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여성 고령자보다는 남성 고령자가 공공도서관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밝혔고, 아울러 60대 이상의 건강하고, 학력이 높으며, 생활수준이 비교적 안정된 사람들이 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2000년대의 노인 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소수의 연구자의 관심에 의해서 간헐적으로 그 명맥을 이어 온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노인층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2010년대 이후부터는 관련 연구의 주제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교육프로그램(이명희, 김미초, 2010), 노인층의 도서관불안(오선혜, 이성숙, 2012), 도서관 이용요인(노경주, 2014)과 비이용요인(김미진, 2015), 정보이용행태(송수인, 2014; 이경미, 2014), 노인대상 서비스에 대한 평가(김은지, 2014)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서 커다란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는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의 입장에서 서 있는 것으로, 그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삶에 어떤 도움과 혜택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대부분이 외국의 사례와 정책을 소개하는 내용이거나 구조화된 설문에 의해서 정량적으로 만족도와 성과를 평가하는 것일 뿐 도서관이라는 제도가

그들의 삶에 만들어 놓은 구체적인 변화와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질적인 접근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서, 노인들의 삶에서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공간이 가지는 심층적인 의미나 가치를 입체적으로 밝혀내는 것으로 진전되지는 못하고 있다. 김은지와 이성신(2014)의 연구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노인층과 서비스 제공자인 사서의 이야기를 질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루고 있으나, 이 역시 도서관 이용이라는 경험 그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므로써 도서관 이용자나 서비스 제공자의 경험을 심층적이고 내밀하게 다가서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공공도서관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껏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연구들이 현장에서의 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음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노인들을 서비스의 대상으로 객체화시켜서 바라보고, 성급하게 일반화시키는 것만으로는 도서관 서비스가 가지는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자칫하면 표피적이고 형식적인 서비스의 개선이라는 측면에만 얽매이게 될 위험마저 없지 않다.

이러한 서비스의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려면 개개의 이용자의 입장에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하나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의 이들의 경험을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제도와 공간이 은퇴 노인들의 삶에 남겨 놓은 얼룩과 무늬를 파악하는 일로 미세하게 시선을 옮겨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인층에 대한 서비스의 개발이라는 실무적인 접근에 앞서서 무엇보다 이들의 도서관 이용 실태와 내면적인 요구를 보다 섬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공도서관을 생활의 중요한 거점으로 삼게 된 개인적인, 사회적인 동기과 계기, 도서관에서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활동,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바라는 사항, 도서관을 통해서 얻게 된 실제적인 삶의 변화나 혜택, 그리고 도서관 이용이 이들의 삶과 생활에 제공하는 의미와 가치 등을 보다 입체적이고, 형상(image)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위한 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2 내러티브 탐구와 도서관

내러티브 탐구는 자연과학의 실재론적 가정보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의 사회적 활동을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Riessmann, 1993). 내러티브 탐구는 캐나다의 교육학자 클랜딘과 코넬리가 제안한 것으로 연구의 방법과 결과로 모두 이야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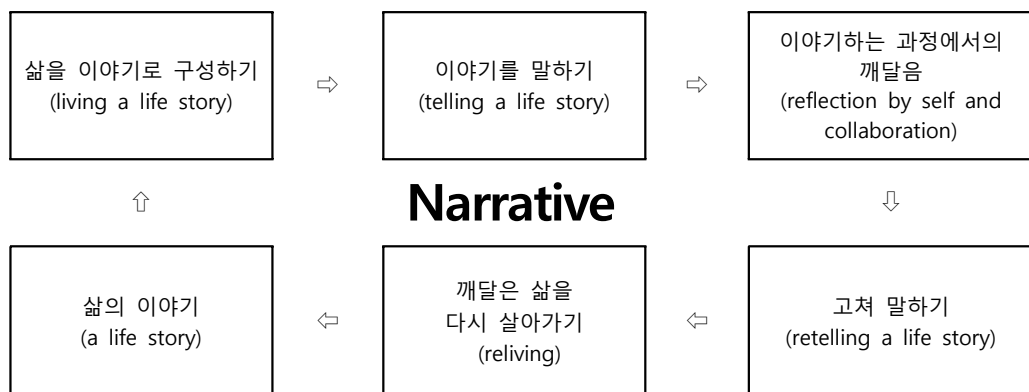
Ricouer(1984)에 따르면 이야기는 인간의 경험을 언어로 진술하는 방식이고, 경험에 형태를 부여하는 양식이다. 경험은 사람의 정신과 육체가 외부의 사물과 만나는 과정이고,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세상을 인식하고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경험은 줄

거리를 가진 이야기로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형태를 지니게 된다. 존재의 경험이 담겨 있는 이야기는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야기는 경험을 통해서 존재를 체험하고 존재의 뜻을 찾아 삶의 뜻을 세우는 과정 바로 그 자체이다. 이야기되지 않은 경험은 그저 혼돈일 뿐이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한 것이다. 경험이 말로 이야기됨으로써 반성적인 성찰이 가능해지고, 그것이 다시 은유가 되고 상징이 되면서 하나의 의미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야기는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고, 삶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이호신, 2014).

내러티브 탐구의 연구 과정은 경험에 형태와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삶의 이야기를 살아가고(living a life story), 이야기를 말하고(telling a story),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고(reflection by self and collaboration), 이야기를 다시 고쳐서 말하고(retelling a life story), 삶의 이야기를 다시 살아가는(reliving a life story) 순환적 진보의 과정을 통해서 이

루어진다(김대현, 2006). 내러티브 탐구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이며, 동시에 경험을 해석하고 재해석하는 방법까지를 포함한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이야기는 끊임없이 순환이 된다. 이야기는 단순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순환과 되풀이의 과정에서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성숙된다.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러한 경험을 해석하고 재해석하는 방법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염지숙, 2003). <그림 1>은 내러티브 탐구의 이러한 순환적 진보의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김대현, 2006, p. 115).

클랜디닌과 코넬리가 제시하는 3차원적 탐구공간(Clandinin & Connelly, 2000)은 우리들의 삶의 실제 공간을 의미한다. 시간의 흐름과 실존적인 측면이 내재되어 있는 물리적인 일상의 생활공간이다. 연구자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참여자의 삶을 관찰하고 함께 참여하면서 생활하게 된다. 연구자와 참여자가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비형식적인 만



<그림 1> 내러티브 탐구의 개념

남과 구조화되지 않은 일상의 대화, 메모, 관련 사진, 기타 기록물, 연구일지 쓰기 등을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 구조화된 또는 반구조화된 인터뷰가 진행되기도 하지만, 일상적인 생활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자연스러운 이야기들이 수집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내러티브 탐구의 진행 절차이다.

연구자가 재구성한 이야기는 연구자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참여자의 이야기가 된다.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연구자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해석이고, 또한 참여자의 해석이다. 또한 경험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현장의 심층적이고, 다차원적인 모습을 확인하면서 실천적 함의를 발견하게 된다. 이야기 속에는 화자의 정체성, 내면의 풍경과 같이 계량화된 수치를 통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담겨 있으며, 삶의 현장에서의 세밀하고 아주 깊이 있는 전경이 입체적이고 연속적으로 담겨 있다. 내러티브 탐구의 목적은 현상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과 이론을 도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궁극적인 의미와 맥락을 해석하고, 대상이 되는 경험과 삶을 다차원적이고 연속적으로 파악하려는 데에 있다.

내러티브 탐구의 목적은 지식을 덧붙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구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려는 데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쉽고 널리 읽힐 수 있는 예술적이고, 문학적인 텍스트가 될 때 더욱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연구는 그 안에 담겨진 지식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독자들에게 있음직한 삶을

대신 검증해 준다는 점에서 읽혀진다. 내러티브 탐구는 일반적인 적용이나 활용을 위한 처방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비교하고 상상하는 자리(place)를 마련하려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Clandinin & Connelly, 2007).

내러티브 탐구는 본래 교육학에서 출발한 연구 방법이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 속의 학교와 교실이라는 실제 삶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의 여러 가지 교육적 경험에 관한 연구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학교 교실이라는 실질적인 삶과 교육의 공간에 실존하는 교사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이야기를 찾아가는 내러티브 탐구의 이러한 구조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문헌정보학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이라는 사회적인 공간과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경험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은 클랜디닌과 코넬리가 제안하는 3차원적 탐구공간으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도서관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시간적인 연속성 속에 자리한 공간이고, 그곳에서 숨 쉬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측면과 도서관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교차하면서 만들어지는 삶의 공간이다. 도서관은 이제 막 새롭게 부임해온 신입 관장의 포부와 의욕으로 가득 찬 희망의 공간일 수도 있고, 낯내기 사서가 서투르게 대학에서 배우고 익혔던 것을 적용해 가는 공간일 수도 있고, 비정규직 사서의 팍팍한 일상이 고달프게 전개되는 공간일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도서관은 독서삼매경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작가지망생의 습작의 공간이고, 정년퇴직한 늙은 남편들이 긴 하루를 소

일하는 공간일 수도 있다. 도서관은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 각자의 처한 입장과 상태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와 경험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함께 사용하고 머무는 공간이지만, 도서관은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적인 영향에 따라서 아주 상이한 경험과 의미의 공간이 될 수 있다. 도서관은 이렇게 그들 각자의 삶의 연속성 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환경 속에 존재하는 물리적이면서도 심리적인 측면을 함께 지닌 3차원적 탐구의 공간이다(이호신, 2014).

내러티브 탐구는 도서관 운영에서의 미비점을 파악해서 보고하기 위한 평가의 도구(Farmer, 2004)로 문헌정보학 분야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이후 도서관 현장, 특히 학교 도서관 사서교사의 직업적인 경험을 파악하는 데 주로 활용이 되고 있다(Ewbank, 2005; Jones, 2010; Kimmel, 2013; Sandford, 2013; Stephanie, 2010; Walter, 2008). 내러티브 탐구가 주로 사서교사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까닭은 내러티브 탐구가 교육학에서 비롯된 연구방법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학교도서관이라는 교실과 유사한 환경에서 연구가 시작되었고, 차츰 다른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의 방법과 결과로 이야기를 활용하는 독특한 연구 방법으로, 아직까지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그리 활발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연구 방법이다. 이호신(2012)에 의해서 법학전문사서의 직업적인 정체성의 형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연구방법에 대한 소개(이호신, 2014)가 간략하게 이루어졌고, 이후 고정원(2015)에 의해서 독서치료에 참여

하는 학생들의 경험이 다루어진 정도일 뿐이다.

3.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은퇴 노인들의 도서관 이용 경험을 클렌디닌과 코넬리가 제안한 내러티브탐구의 방법으로 접근한 것이다. 연구는 서울 시내 공공도서관 1곳에서의 참여관찰과 연구참여자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되었고, 참여관찰 내용과 인터뷰 결과를 현장텍스트로 작성하고, 현장텍스트를 바탕으로 다시 연구텍스트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서울 시내 S도서관(서울시 마포구 소재)을 주당 2-3회씩 아침마다 방문하여, 사람들의 특히 은퇴 노인들의 도서관 이용에 대해서 참여 관찰하였다.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S도서관은 주민센터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지하는 주차 공간이고, 1층과 2층은 주민센터가, 3층은 지역보건소와 도서관이 나누어서, 4층과 5층은 도서관이 전체를 사용하고 있다. 연면적 1,146평방미터 정도의 공간에 약 7만권 정도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도서관은 지하철역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에 여러 개의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접근이 아주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도서관 3층은 세미나실로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문화행사가 이곳에서 주로 개최되고, 동아리방처럼 사용하기도 하는 작은 창고 겸 회의실도 마련되어 있다. 4층은 어린이자료실과 도서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5층은 종합자료실과 디지털자료실, 그리고 휴게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참여관찰을 위해서 내가 주로 방문한 곳은 5층 종합자료실이었다. 종합자료실은 어린이 도서를 제외한 도서관이 소장한 모든 도서들이 비치되어 있으며,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서가 옆에 개인용 열람 테이블을 놓아두기도 했다. 노인 이용자들이 많아진 까닭 때문인지 도서관 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돋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볼 수 있는 대형도서를 비치하여 두고 있었으며, 노인들의 도서 이용을 돕기 위한 돋보기도 몇 개 비치되어 있었다.

참여 관찰이 진행되는 동안에 도서관을 방문하는 날마다 도서관 관계자나 도서관 관찰에 대한 경험을 연구일지로 작성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도서관의 이모저모를 사진으로 남기기도 하였다.

도서관 관계자의 도움으로, 이용자 가운데 5명을 소개받아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인터뷰는 1회의 예비면담을 거쳐서 개인별로 2-3회 정도로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갤럭시탭을 활용하여 디지털파일로 녹음하였다. 인터뷰 후에 인터뷰의 내용은 모두 녹취록으로 작성하였고, 인터뷰 자료의 활용에 대한 개별적인 동의를 받았다. 인터뷰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출생부터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것과 함께 도서관 이용 경험과 그 의미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었다. 출생과 성장과정, 직장과 결혼, 가정

생활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배경에 관한 질문과 함께 아울러 은퇴 후의 생활공간으로 도서관을 선택하게 된 계기, 도서관에서 주로 하는 활동,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지금의 생활에서 도서관이 가지는 의미에 관한 사항들을 두루 포함하였다. 준비된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맥락에 따라 조금씩 다른 질문들을 포함하는 반구조화된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 가운데 염상섭과는 식사장소를 같이 방문해서 식사를 나누고, 공원에서의 운동과 산책, 또 다른 도서관 방문 등의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약 5시간가량 가지기도 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했던 연구참여자 가운데 1명은 1차 인터뷰 이후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연구의 자료로 사용이 된다는 점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서 연구 참여에 대한 중단을 요청하였고, 또 다른 1명은 본인의 이야기가 작성된 글이 발표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움을 표현해서 연구텍스트 작성에서 배제되었다. 이에 따라 총 3명에 대한 연구텍스트를 작성하였다. <표 1>은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의 내역이다(연구참여자의 개인 신상 보호를 위해서 일제강점기에 활동하던 문인들의 이름으로 가명 처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은퇴 이후에 3년에서 10년 정도까지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표 1> 연구참여자 및 면담 내역

성명(가명)	성별	출생년도	출생지역	전직	면담
염상섭	남	1949년	서울	회사원	3회
노천명	여	1951년	서울	교사, 회사원, 주부	2회
김유정	남	1934년	황해도	미군 군무원	2회

이들에게 도서관은 자신들의 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들은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도서관을 방문해서 도서관의 책을 읽거나 대출하는 활동을 지속하거나, 도서관이 제공하는 각종 문화프로그램에 참석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도서관과 관계 맺음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들로부터 수집한 현장텍스트를 바탕으로, 소설, 에세이, 편지 형식으로 연구텍스트를 작성하였고, 연구참여자들에게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연구로서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연구텍스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의 도서관 이용이 가지는 의미를 추출하기 위한 별도의 해석 작업이 함께 이루어졌다.

4. 연구의 결과: 은퇴 노인들의 도서관 이용 경험

4.1 규칙적인 생활을 위한 거점 공간 (염상섭의 내러티브)

아침의 도서관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고즈넉했다. 아침 햇살이 서가 구석구석까지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염상섭은 언제나처럼 아침 9시에 도서관 자료실에 들어서서 늘 앉던 자리를 찾았다. 도서관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왔건만 오늘따라 염상섭이 늘 앉던 자리는 이미 젊은 친구가 차지하고 있었다. 염상섭은 잠시 망설였다. 자료실 내에는 아직 덩성덩성 자리가 많이 남아 있었지만, 다른 자리에 앉게 되면 마치 다른 사람의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하게 하

루 종일을 견뎌야 할 터였다. 미안함을 무릅쓰고서라도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는 편이 하루를 편안히 보내는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그렇지만 자료실의 자리가 누군가를 위한 지정 좌석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건네는 것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알 수는 없었다. 조금의 망설임 끝에 염상섭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자리를 차지한 젊은 사람에게 다가갈 말을 걸었다.

“미안한데... 여기 내가 늘 앉던 자리인데, 다른 곳으로 자리를 좀 옮겨 주면 안될까요?”

이곳은 주변의 다른 도서관들과는 달리 자습을 위한 열람실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보건소와 건물을 나누어 쓰는 도서관에 자습을 위한 열람실을 따로 마련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요즘 들어서 자습 공간 없이 순수한 책읽기를 위한 공간으로 마련된 도서관들도 드물지 않았다. 입구에 자료실 내에서 자습하는 행위를 삼가달라는 안내문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지만, 토익 책이나 공무원 수험서를 가지고 시험공부를 하는 젊은 사람들이 꽤 많았다. 도서관 측에서도 안내문을 게시하는 행위 이외에는 적극적으로 이들을 제지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 공간의 대부분은 서가와 책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책을 볼 수 있는 테이블은 정작 몇 개 되지 않았다. 서가 사이에 군데군데 놓인 소파까지 두루 합쳐도 좌석은 50석이 채 되지 않는 것 같았다. 염상섭이 늘 앉는 곳은 자료실 서가를 등지고 있는 테이블의 가운데 자리였다. 서가 근처의 자리에 앉게 되면, 소파에 앉는 사

람들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곤 했다. 반쯤 누운 자세로 소파에 기대어 잠을 자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옆상섭에게는 몹시도 눈에 거슬렸다. 가능하면 이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자리에 앉아야 하루를 평안히 보낼 수 있었다.

옆상섭이 도서관을 찾기 시작한 것은 약 4년 전쯤이었다. 조금은 이른 나이에 직장을 관두고 부모님 병구완으로 3년여의 시간을 보낸 직후였다. 도서관은 집에서 전철로 두 정거장이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전철역 바로 앞에 있어서 다니기에 더 없이 좋았다. 주변의 다른 도서관들도 다녀보았지만, 수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좀 불편했다. 이곳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구청에서 보내주는 소식지를 통해서였다. 소식지에 나온 전화번호를 보고 도서관으로 전화를 했을 때, 도서관 직원이 친절하게 이것저것을 안내해주었다. 도서관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옆상섭이 읽기에는 충분한 장서가 갖춰져 있었고, 수험준비생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훨씬 자유롭고 활기찬 마음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자리한 위치도 마음에 들었고, 전화 문의에 친절하게 응대해주는 도서관 직원들이 무엇보다도 마음에 들었다.

옆상섭은 중·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에는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었다. 처음으로 이용했던 도서관은 지금 롯데백화점 자리에 있던 국립도서관이었다. 새벽에 도서관에 가서 번호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밥 먹고 도서관에 돌아가면 얼추 자리가 났다. 주변에 공부 잘하던 친구가 몇 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도서관

에 다녀서 함께 가자고 했고, 형님이 재수하면서 도서관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도서관에서는 주로 집에서 가져간 책으로 수험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틈을 내어서 베스트셀러나 수필집을 빌려보기도 했다. 잠깐의 일탈이었지만 그런대로 쓸쓸한 재미가 있었다. 국립도서관뿐만 아니라 남산도서관도 친구들과 자주 다녔던 곳이었다. 남산도서관에 갈 때에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다. 도서관에 가려면 새벽부터 가서 줄을 서야 했다. 길게 늘어선 줄을 뚫고 도서관에 들어오면 새벽부터 피로가 몰려오기도 했다. 그곳 식당에서는 점심시간에 국물을 팔았다. 점심시간이면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국물에 말아 먹으면서 매서운 추위를 이겼던 기억이 새로웠다. 대학시절에는 도서관을 훨씬 더 많이 이용했다. 학교에 가면 으레 도서관에 자리를 잡고, 수업이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냈다.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지금까지도 도서관 자료실에서 이런저런 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고, 주로 자기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공간으로 이용했을 뿐이었다. 물론 짬짬이 도서관에 새로 들어 온 책을 빌려서 읽기도 했지만 도서관은 머물 수 있는 공간 자체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그곳에서 전공이나 시험 공부에 몰입했던 것 같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도서관을 이용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시간이 날 때면 가끔씩 서점에 들러서 이런저런 책을 사보기도 했지만, 도서관은 좀처럼 이용하지 않았다. 옆상섭이 직장생활을 하던 당시에는 토요일에도 근무를 했었고, 평일에는 9시나 10시,

토요일에는 7시나 되어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것은 엄두를 낼 수는 없었다. 휴일에 가족들과 야외로 놀러 다니던 적은 있어도 아이들 손을 잡고 도서관을 방문할 생각을 해 본적은 없었던 것 같다. 요즘 아빠들이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에서 이런 저런 책을 읽어 주는 걸 보고 있노라면 왜 젊은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지 살짝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염상섭이 은퇴를 결정한 것은 집안 사정 때문이었다. 4남 1녀 가운데 셋째로 태어나서 자랐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이 앓아눕게 되자, 아무도 병구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조금은 이른 나이였지만,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3년 넘는 세월을 부모님 병수발을 하면서 보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비로소 여유를 갖게 되었지만,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다행히 직장 다니던 무렵에 마련해 놓은 아파트 상가와 창고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었다. 구청 소식지에서 도서관을 발견하게 된 것이 바로 그 무렵이었다. 소식지에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여러 도서관들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었고, 그 도서관을 하나씩 발품을 팔면서 다녀 보았다. 도서관의 위치와 규모, 프로그램들을 두루 고려해서 이 도서관에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도서관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 벌써 4년이 훌쩍 넘어서고 있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도서관을 이용하다 보니 이제 도서관 안에 익숙한 얼굴들도 제법 많아졌다. 도서관에는 염상섭처럼 도서관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

들 가운데 몇몇은 이제 만나면 서로 가벼운 눈 인사도 주고받기도 하고, 안부 인사를 나누거나 이런저런 화젯거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그렇지만 이들과는 아주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고 있을 뿐 속내를 털어놓을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기는 좀처럼 어려웠다. 도서관의 사서들과 과도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일을 함께 돕기도 하는 사이가 되었다. 사서들에게 스마트폰 이용 방법을 물어보면 아주 친절하게 잘 알려주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그 가운데 몇몇은 가끔 식사도 함께 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과 격의 없이 지내기는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다. 더구나 남자보다는 젊은 여자들이 많아서인지, 사서들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는 아무래도 좀 더 어려운 것 같았다.

어렵사리 제 자리에 앉은 염상섭은 서가에서 책 몇 권을 가져다가 열람 테이블 위에 얹어 두었다. 도서관에 나오기 시작하던 무렵에는 영어책을 주로 읽곤 했다. 그렇게 한 동안 보다 보니 이제 도서관에 비치된 웬만한 영어책은 거의 이미 한 번씩 본 것들이 되었다. 이즘은 주로 경제학 관련 책들을 읽고 있었다. 대학 시절부터 보았던 익숙한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경제신문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던 내용들이라 다른 분야의 책들보다 훨씬 읽기가 수월하고 이해가 빨랐다. 가끔씩 수필집이나 잡지도 읽기는 했지만, 새로운 내용들은 좀처럼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내 포기해 버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경제학이라고는 하지만 그리 전문적인 내용의 책은 아니고, 경제 현상을 쉽게 풀어쓴 상식에 가까운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은 쉽게 이해도 가지 않을뿐더러, 어렵사리 읽

었던 내용도 금세 잊어버리고 만다. 그래도 이렇게 읽어둔 내용들이 경제신문을 읽을 때 적지 않게 도움이 된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요즘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파악하고, 관련된 새로운 용어를 알아가는 재미가 그래도 제법 쏠쏠했다.

경제학 책 몇 권을 테이블 위에 얹어 두고 옆상점은 자료실 한 쪽에 마련된 신문 서가로 자리를 옮겼다. 젊은 시절부터 신문 읽기가 습관이 되었던 터라, 옆상점의 독서의 상당 부분은 신문이 차지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으로 신문기사를 찾아서 읽곤 했지만, 그래도 도서관에 오면 다시 신문을 찾아서 보는 것이 거의 습관이 되었다. 신문 기사의 대부분은 이미 아침에 휴대폰으로 보았던 것들이라서 살펴보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다시 자리로 돌아온 옆상점은 낮은 도수의 안경으로 바꿔 쓰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동안 말없이 책읽기에 집중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도서관 밖으로 나왔다. 10시 40분. 지금 도서관을 출발해서 구청으로 갈 참이다. 구청은 도서관에서 전철로 네 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었다. 구청으로 가서 그곳 구내식당에서 점심으로 먹으러 출발하는 길이다.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 것도 옆상섭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과 가운데 하나였다. 도서관 바로 옆에 노인복지관이 있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복지관에서 식사를 했지만, 옆상섭은 식사만큼은 꼭 구청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었다. 복지관의 식사가 맘에 들지 않기도 했고, 노인들만 북적대는 곳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않았다. 식사를 하러 오고 가면서 걷

는 것은 나름 꽤 운동이 되었고, 오후의 집중력을 살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구청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제법 만족스러웠다. 식사를 마치고 운동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구청 옆 공원을 몇 바퀴씩 돌면서 바람을 쐬기도 했다. 식사를 마치고 그렇게 다시 도서관에 돌아오면 보통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곤 했다. 구청 근처에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데, 새 도서관이 개관하면 그곳으로 근거지를 옮겨 볼까 고심 중이다. 주변에 좀 더 많은 편의시설들이 갖추어져 있고, 규모도 제법 큰 것 같아서 새 도서관에 사뭇 기대를 걸고 있다. 사실 옆상섭이 이용하는 도서관은 규모가 좀 작다보니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좀 부족한 것이 아쉬웠다. 물리적인 제약을 모르는 바 아니어서 크게 불만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더 쾌적하게 다양한 시설들이 갖추어지면 더 좋을 것 같았다. 특히 괜찮은 식당이 하나쯤 도서관에 있으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구청 구내식당은 11시부터 배식을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쯤 나가면 비교적 한적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공무원들의 식사 시간과 가능한 겹치지 않게 조금 서둘러서 식사를 하는 편이 조금은 쾌적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나름의 비결이라면 비결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왔을 때는 12시가 조금 지나고 있었다. 이제부터 다시 독서에 몰입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옆상섭은 다시 책상에 앉아서 안경을 바꿔 쓰고 덮어 두었던 책장을 펼쳤다. 옆상섭에게 책 읽기는 변화가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방편 가운데 하나였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 책을 읽고 있으면

시간도 훌쩍훌쩍 빨리 지나갔고, 지루할 틈이 없었고, 자신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정해진 시간에 도서관으로 나오고, 식사를 하러 가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규칙적인 생활은 노년의 건강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친구들은 더러 함께 산에도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몸이 불편한 염상섭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다. 염상섭은 한국전쟁이 나기 바로 전 해인 194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거의 태어나자마자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부모님은 염상섭과 형제들을 데리고 충남 장항으로 피난을 갔다. 장항에서 살던 무렵에 동네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다. 지금 같으면 대학병원에 가서 치치하면 금방 나을 수도 있는 대수롭지 않은 부상이었지만, 당시 그곳에는 변변한 병원도 없었고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그 때 입은 상처로 염상섭은 척추장애를 얻어서 내내 불편한 생활을 감수해야 했다. 장애로 인한 콤플렉스 때문에 친구를 많이 사귀지는 못했다. 그래도 가까운 친구들이 적지 않게 있어서 어려움을 무난하게 극복할 수 있었다. 대학시절을 줄곧 도서관에서 보내게 되었던 것도 불편한 몸의 영향이 컸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은퇴를 하고 등산을 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활동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염상섭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찾게 된 것이 도서관이었는데도 모르겠다. 학창시절에 도서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도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 대단히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지도 모르겠다. 등산과 같은 외부 활동을 하는 친구들은 간혹 부상

을 입기도 했지만,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는 생활은 그런 위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기도 했다. 친구들 가운데 아직 현역으로 활동하는 친구도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은퇴를 했고 대부분 남아도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고민이었다. 시간이 많이 남는 친구들은 염상섭처럼 도서관에 다니기도 했고, 여기 저기서 하는 강의를 들으러 다녔고, 심심하다고 개인택시 자격증을 따서 택시운전을 하는 친구도 있었다. 염상섭이 도서관에 다닌다고 하니 가까운 친구 하나도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책읽기에 취미를 붙이지 못하고 이내 시들해져 버렸다. 젊은 시절부터 책읽기에 취미를 들이지 못하다 보니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저 신문이나 몇 개 살펴보다가 도서관을 나오기 일쑤였다고 한다. 염상섭은 자신이 도서관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그래도 책읽기를 멀리 하지 않았던 생활 습관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도서관이 없었더라면, 염상섭은 아마도 부동산 중개업소를 들락거리지 않았을까 싶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친구들이랑 그곳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소일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문득 도서관이 참 고마웠다.

그렇게 한 동안 책 읽기에 열중하던 염상섭은 주섬주섬 짐을 챙겨서 도서관 밖으로 향한다. 요즘은 일주일에 3번씩 또 다른 인근 구청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 강의를 듣고 있다. 이제 강의를 들으러 갈 시간이었다. 도서관에서도 가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밤 시간에 진행되어서 염상섭이 참여하기는 좀 어려웠

다.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인문학 강좌들에 참석해 보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밤늦게 집에 들어갈 수는 없는 형편이라서 이내 포기해 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찾아서 듣게 된 컴퓨터 강좌에 벌써 2년 넘게 참석하고 있었다. 이제는 제법 아는 얼굴들도 생겨서 어쩌다 결석이라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었냐는 질문을 받기도 한다. 한글과 엑셀을 비롯해서 여러 컴퓨터 프로그램과 스마트 폰 사용법을 꽤 오래 배웠지만, 그것을 써먹을 일은 많지 않았다. 카톡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은 유용했지만, 문서를 작성할 일도 없었고, 이메일을 주고받을 사람도 딱히 없었다. 그래도 이렇게 컴퓨터를 배워둔 덕분에 PC로 모르는 경제학 용어를 찾아보기도 했고, 휴대폰으로 신문 기사를 찾아서 읽고, 야구 중계를 보는 데 어려움은 없게 되었다.

오늘처럼 강의를 있는 날은 일찌감치 도서관 생활을 마감하고 돌아가지만, 강의를 없는 날은 저녁 무렵까지 꼬박 도서관에 머물면서 책을 읽었다. 요즘 염상섭의 생활의 모든 패턴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어김없이 도서관에 나왔고, 도서관이 휴관하는 날에는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다른 볼 일을 보았다. 휴관일에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인근의 다른 도서관을 찾아가기도 했다.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때 책을 빌려 가지는 않는다. 책 읽기는 도서관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했다.

염상섭은 이렇게 매일 도서관을 방문할 수 있는 것에 만족했다. 도서관은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위한 방편이었다. 도서관에 나와

서 좋아하는 책을 찾아서 읽고, 강의를 듣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은 시간을 무료하지 않게 보내고 무엇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어 주었다. 도서관에 나와서 이렇게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뿌듯했다. 아침에 집을 나서서 망설임 없이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오늘 하루 할 일이 있다는 점이 좋았다.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지금까지의 여러 경험들을 살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았다. 이 도서관에서도 자신이 유용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참석해 보리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먼저 나서서 내가 이런 일을 도와줄 수 있으니 함께 해 보자고 제안하고 나서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웠다. 가끔 신문을 갈아 끼우는 것 같은 사소한 일을 돕기도 했지만,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다른 역할을 맡아도 괜찮을 것 같았다. 도서관에 나오는 할머니들은 어린이열람실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역할을 맡아서 진행하기도 했고, 젊은 사람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도서관에서 요청이 오기 전에 자신이 먼저 나서서 이런 일을 해보겠노라고 제안하기는 좀 조심스러웠다. 그래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함께 참여해보면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또한 무척 행복한 일일 것이다. 그런 참여가 도서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있는 것으로 이끌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아쉬움이었다. 가볍게 눈인

사를 주고받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수준 이상의 만남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함께 나눌 수 있는 무엇인가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도서관 운영진이 그런 만남의 매개자가 되어 준다면 무척이나 고마운 일이고, 기꺼이 참여할 의향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아도 바쁜 사서들에게 그런 것까지 기대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듯 싶었다.

염상섭은 다음 일정을 위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천천히 도서관을 나섰다.

4.2 재미와 활력 그리고 새로운 꿈꾸기를 위한 보물창고(노천명의 내러티브)

남편의 정년퇴직은 아주 커다란 변화였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나 집으로 돌아오던 사람이 온종일을 꼼짝 안하고 집안에 머무는 것은 아무래도 서로에게 꽤 불편한 일이었다. 남편의 점심을 챙겨주기 위해서 밖에서 하던 일을 서둘러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자주 반복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집안의 컴퓨터를 남편이 거의 혼자 독점하다시피 해서, 나는 간단한 신문기사 하나 검색할 기회조차 갖기가 어려웠다.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마음대로 작동이 안 되더라도 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만져서 그렇게 되었다고 잔뜩 지청구를 늘어놓기도 했다. 이래 가지고는 도무지 제대로 된 내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데, 매일 매일이 계속 이렇다면 함께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불편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남편에게 과감하게 선언했다. 당신의 은퇴와 더불어 주부로서의 내 생활도 이제 그만 은퇴하겠노라고, 점심식사는 이

제부터 각자 알아서 해결하자고, 아침에 집을 나설 때 가능하면 점심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챙겨 놓겠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다. 이제 그런 정도는 각자 알아서 해도 충분하지 않은가? 매일 그렇게 허둥대는 내 모습에 조금 미안하기는 했던지 남편도 이런 나의 제안을 생각보다 순순히 받아들였다. 이제는 남편도 제법 적응이 되어서 그런지 점심시간에 자꾸 들락거리면 오히려 귀찮아하는 눈치이다.

결혼하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집안에 들어앉아 살림만 한 것이 30년이 훨씬 넘었다. 아이들이 웬만큼 자랄 때까지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과 남편을 챙기는 것이 내 생활의 거의 전부였다. 결혼하기 전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국문과를 졸업하고, 잠깐 시골 학교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했었다. 국문과에 입학한 것은 문학에 대한 관심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고, 순전히 국어교사가 되기 위해서였다. 졸업할 무렵에 임용시험을 보았지만 아쉽게도 탈락해버렸고, 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 학교에 지원했더니 덜컥 합격이 되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랐던 터라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외지에서 하는 생활이었다. 다 큰 딸이 친지 하나 없는 객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마땅치 않았던지 아버지는 빨리 관두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성화였다. 아버지의 채근에 못 이겨서 짧은 교사 생활을 마감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고, 대기업에 취업해서 사무직으로 근무했다. 그곳에서 한 2년 근무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당시에는 여직원들에게 결혼은 곧 퇴직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퇴직

에 대한 특별한 아쉬움은 없었다. 결혼 한 이후에는 줄곧 집안에서 살림하고, 아이들 낳고, 돌보면서 지금껏 살아왔다. 남편을 따라 4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하기도 했지만, 마찬가지로 모든 생활은 아이들과 남편에게 맞추어져 있었다. 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한 것은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난 이후부터였다. 이젠 나도 내 생활을 좀 하고,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운동을 다니기 시작했다. 그 무렵 일산에 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밤늦게 총알버스 타고 오는 게 걱정스러워서 다시 서울로 이사를 왔다. 이사를 온 동네에 마침 도서관이 새로 개관하면서 그때부터 이곳을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도서관을 처음으로 이용한 것은 중학교 때였다. 친구들을 따라서 시험공부를 하러 다녔다. 그렇지만 막상 도서관에서 공부랍시고 한 것은 고작 교과서의 첫 장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도서관에 가면 나는 소설책을 읽다 오곤 했다. 문학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 도서관에 꽂힌 책들이 그냥 눈에 띄어서 그랬던 것 같다. 그 무렵 아현동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가끔 다녔지만, 주로 가는 곳은 학교도서관이었다. 시험공부는 그럴싸한 핑계였고,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살짝살짝 소설책을 읽는 합법적인 작은 일탈이었다. 문학에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국문과를 졸업한 덕분에 아이들 키우는 동안 동화책이나 소설책 읽기를 손에서 놓은 적은 없었다. 동화책을 녹음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기도 했고, 세간에 화제가 되는 베스트셀러 작품들이나 <현대문학> 같은 문예지들을 찾아서 짬짬이 읽었다.

요즘은 <이야기 할머니>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유치원으로 아이들에게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는 자원봉사를 다니고 있다. 동화책으로 나오지 않은 우리 선현들의 이야기를 동화처럼 각색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일이다. 일주일에 3일씩 서울 시내 유치원을 방문하는데, 이야기를 머릿속에 담아두었다가 아이들 앞에서 풀어내는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니다. 머릿속을 온통 그 이야기로만 채워 두었다가 또 다른 이야기 할 차례가 되면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머릿속을 완전히 바꿔주어야 한다. 그렇게 머릿속을 다시 정리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요즘은 아이들에게 토정 이지함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이지함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인터넷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찾아보았다. 설민석이나 최진석 같은 유명 강사들이 하는 동영상 강의도 찾아보다보니 새삼스럽게 역사 공부도 되었다. 힘들기는 해도 한 달가량 한 유치원을 방문하게 되면, 자기 할머니보다도 더 반갑게 맞이해 주는 아이들 때문에 힘을 얻곤 한다. 처음에 나갈 때 순수한 자원봉사였는데, 요즘은 차비 정도는 챙겨 준다. 차비를 챙겨 주기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제약이 참 많아졌다. 그 차비라는 것이 결국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인데, 그 돈에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야기 할머니> 활동도 한 사람이 2년 넘게는 못한다는 제약이 생겨 버렸다. 정부가 끼어들면서 순수한 자원봉사가 직업 창출과 같은 이상한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그 정도 돈 받고 하는 걸 무슨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난 의문이다. 몇 년 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오랜 동안 같고 닦은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은

데, 자꾸 새로운 사람들만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오전이면 배정 받은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혼자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하고 가까운 도서관에 들러서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가 되면 운동을 하러 간다. 도서관은 한 곳을 정해 놓고 다니기 보다는 그날그날의 스케줄에 따라서 동선이 가장 편리한 곳을 찾아간다. 조금이라도 시간 여유가 생기면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으로 찾아간다. 도서관에서는 주로 디지털자료실에서 원고를 쓴다. 구청에서 진행하는 컴퓨터 강좌를 수강한 덕분에 제법 컴퓨터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무리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다고 해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도서관 사서들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받아서 몇 번씩 해 보면서 이제는 제법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의 컴퓨터는 남편이 독자치하고 있는 우리 집 컴퓨터와는 달리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내 것인 셈이다. 인터넷이 조금 빠르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무료로 쓸 수 있는 내 컴퓨터가 있다는 것은 황재나 마찬가지다. 컴퓨터 앞에 앉으면 인터넷으로 이것저것을 검색하기도 하지만, 주로 하루 종일 머릿속에 담아 두었던 생각들을 글로 옮기는 작업에 집중하려고 한다.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던 생각들을 글로 옮겨 가는 재미가 무엇보다 쏠쏠하다. 처음엔 블로그에 글을 작성해서 올려 두었는데, 나중에 출력하고 다른 포맷으로 옮겨서 사용하려고 하니 이곳저곳이 자꾸 깨지는 바람에 요즘은 한글에 직접 원고를 작성해서 USB에 저장해 둔다.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2시간 정도밖에 되

지 않지만, 그래도 집중하기만 하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글로 작성하기에는 충분하다.

지난 며칠 동안은 동화쓰기에 한참 힘을 기울이고 있다. 동화쓰기에 관한 전문서적도 하나 챙겨서 꼼꼼하게 읽으면서 참고하고 있다. 며칠 전 동화쓰기 모임에서 강사에게 잔뜩 핀잔을 들었다. 이런 걸 글이라고 가져 온 것이냐고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표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자존심이 무척 상했지만,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그렇지만 나도 남들 못지않게 잘 할 수 있다는 오기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어쩔 수 없다. 도서관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동화쓰기 프로그램이었다. 처음엔 여러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핵심 멤버들만 남게 되어서 이제는 9명이 동아리로 활동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가끔씩 강사를 보내주기도 해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는 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신랄하게 지적을 받은 것이었다. 사실 난 동화쓰기 모임에 참여하고 있지만, 동화를 쓰는 일에 그렇게 매진했던 것 같지는 않다. 30대와 4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임에서 나는 훌쩍 나이가 많은 큰 언니이다. 모름지기 모임의 만연니가 불성실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작품을 쓰기는 했지만, 작품의 구성을 치밀하게 고민하지 않고 대강대강 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눈 밝은 강사에게 그 모습을 그대로 들켜서 버려서 이렇게 그만 혼쫓이 나고 만 것이다. 어려서도 자라고 나서도 누구에게 심하게 꾸지람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터라 그야말로 진짜 진땀이 다 났다. 며칠 동안 이제 그만둘까 말까

를 고민했다. 젊은 친구에게 그런 언사를 듣는 것이 몹시 자존심에 상처가 되었지만, 그럼 어디 나도 한 번 해보자는 오기도 불쑥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동화작법에 관한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찬찬히 읽어보고, 다시 도전해 보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5년 전에도 비슷한 내용을 읽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읽었던 것은 다 어디로 날라 갔는지... 좀처럼 기억이 나지 않았다. 사실 이런 책은 깊이 있게 봐야 하는데, 나는 태생적으로 그게 잘 안 된다. 꼼꼼히 책을 읽어보고 살펴보니 강사의 지적이 모두 옳았다는 생각이 들어 낮이 뜨거웠다. 조금 더 훈련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면 나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요 며칠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동화작법을 깊이 있게 읽어보고, 글쓰기에 직접 적용해보면서 찬찬히 도전해봐야 할 것 같다.

몇 년씩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 동아리 회원 가운데 몇 사람은 이미 등단을 해서 어엿한 작가가 된 사람도 있다. 대학 때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자기 글을 써보겠다고 직장을 관두고 온 친구였다. 도서관에서 활동하다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되는 6개월인가 1년짜리 코스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상을 받게 되면서, 출판사에서 책도 두 권 냈다. 그 친구를 보면서 정말 두드리니까 열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도 조금씩 생겼다. 진짜 글을 쓰고 싶어서 모임에 왔고, 대학 때 배운 것도 있으니 등단할 가능성이 그만큼 많았던 것일 게다. 이렇게 등단한 멤버를 중심으로 해서 습작품에 대한 합평회를 하고, 새로 나온 동화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것이 동아리 활동의 주요한 내용이다. 나는 처음에는 동화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생각이 더 컸다.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동화책 읽는 어른>과 같은 모임에도 참여했고, 동화를 좀 더 깊이 있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석하기 시작했다. 함께 글 쓰고, 다양한 정보를 얻고, 활동을 하다 보니 정말 시간은 줄 모르는 때가 많았다. 이런 활동들이 주는 재미가 결코 적지 않았다. 그래도 젊은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하다 보니 그 새로운 감각을 따라가기가 좀 벅차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많았다. 사실 나는 소소하면서 잔잔하고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작품을 써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렇게 작품을 써서 가져갔는데, 이런 평판을 받게 되니까 좀 자신이 없어진다. 그렇지만 동화작가라는 새로운 삶을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나를 다잡아 본다. 100세 인생 시대라고 하는 데, 아직 얼마나 더 살게 될지 알 수 없지 않은가? 여기서 이대로 주저앉기는 아무래도 너무 아쉽다.

동화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동화 읽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 동화의 세계 역시 무궁무진하다. 참으로 깊고 오묘한 세상이 그 속에 펼쳐져 있다. 나이든 사람들이 읽기에도 동화는 단연코 최고라는 생각이 든다. 일단 활자도 큼지막해서 노인들이 읽어나가기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 세계 각국의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표현되고 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이 그 속에 담겨 있고, 인생살이의 모든 지혜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로알드 달의 <제임스와 슈퍼복숭아>와 같은 작품은 정

말 재미있는 이야기이다. 필리파 피어스의 〈한 밤중 톰의 정원에서〉 그리고 E.B. 화이트의 〈살롯의 거미줄〉 같은 작품도 정말로 멋지다. 현덕, 권정생, 이금이, 이유정과 같은 국내 작가들의 작품도 무척이나 재미있고 좋다. 이런 동화책을 읽다보면 아이들 어린 시절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동화를 읽어주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살짝 아쉽기도 했다. 그래도 〈이야기 할머니〉 활동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에게라도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동화책은 주로 아침저녁으로 편한 시간에 집에서 읽는다. 역시 책은 집에서 누워서 안락하게 보아야 제 맛이 난다. 사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는 좀 어렵다. 책도 집중해서 봐야하는데, 도서관 안은 너무 시끄러워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큰 소리로 전화를 받는 건 다반사이고, 주위 사람들과 잡담을 주고받거나, 심지어 토론을 벌이는 사람도 있어서 책읽기에 몰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때로는 사서들이 전화를 너무 큰 소리로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땐 업무로 하는 거라서 뭐라고 말을 하기도 참 어렵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는 왜 그렇게 큰 지..... 또 각또각 하이힐을 신어도 자료실 안에서는 조용히 다녀야 하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니 만큼 조금은 조심성 있게 행동해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정말 아쉽다. 도서관의 자리 배치도 책읽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안락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구청에서 새로운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좀 아늑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해주시기를 바랄 뿐이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과 좀 분리 시켜 주면 책읽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자라도 좀 더 넉넉해졌으면 좋겠고, 장서가 좀 더 많으면 좋을 것 같다.

오늘은 도서관에서 야간 강좌가 있는 날이다. 예전 같으면 집에 들러서 남편이랑 저녁 해먹고, 설거지하고 부랴부랴 다시 도서관으로 왔겠지만, 요즘은 여의치 않으면 도서관 근처에서 가볍게 식사를 하고 거기서 직접 도서관으로 온다. 남편도 요즘은 내 일상을 존중해서 아무런 불평을 늘어놓지는 않는다. 간혹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남편과 나는 성향이 아주 달라서 관심 있는 주제나 읽는 책의 종류도 상당히 다르지만, 도서관을 들락거리는 내 생활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배려해해 주는 것 같다.

요즘은 도서관에서 주로 문학이나 철학, 미술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나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체로 프로그램에 참석한다. 대개 저녁 시간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나처럼 오전에 다른 일정이 있고, 오후에 운동을 하는 사람이 참여하기에 나쁘지 않다. 강좌를 수강하는 데 비용이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가끔적이면 관심 있는 프로그램에는 모두 참석하려고 한다. 이 도서관 사서들은 어쩌면 그렇게 프로그램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짓는지, 제목에 혹해서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예전에 〈사물에 이름 붙이기〉라는 제목으로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한 적이 있었다. 난 당연히 시(詩)에 관한 강의라고 생각했다. 시를 처음부터 자근자근 살펴보는 것인가 보다 생각하고 참석했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잔뜩 와 있었다. 이름 짓기라고 해서 손주들에게 멋진 이름을 지어주려고 참석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강의를 진행되

면서 그 분들은 차츰 떨어져 나갔고, 시 읽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만 남았지만 두고두고 생각나는 우스운 에피소드이다. 난 무척 재미가 있어서 강사가 쓴 시집도 사서 읽어보았다. 시 쓰는 사람들에게 가졌던 편견 같은 것도 조금 사라지게 되었다. 아무튼 강좌 이름을 아주 잘 지어서, 제목에 끌려서 강의에 참석하는 적도 많았다. 제목에 비해서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없지 않았지만 대체로 만족할 만했다.

제목만 그럴싸하게 잘 붙이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의 실제 구성과 내용도 참 다채롭게 잘 만드는 것 같다. 요즘은 책을 직접 읽어 주거나 내용을 들려주는 내용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좀 더 친숙하게 책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도서관에서 마련한 '대통령의 날' 행사를 구경한 적이 있었는데, 링컨모자 만들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역사와 대통령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인상적이었다. 요즘 우리 도서관에서도 딱딱하게 책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이랑 퍼포먼스를 연결하거나 책과 관련 있는 물건을 만들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늘었다. 그런 걸 아이들에게 해주니까, 아이들이 참 좋아한다. 아이들에게 무척 유용할 것 같다. 그러니까 주말이면 아이들이 도서관을 제집 드나들듯이 찾아가서 어린이 열람실을 꽉꽉 채우게 되는 것 같다. 아무튼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참 좋은 나라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예전에는 도서관이 책만 빌려주고, 보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콘텐츠들을 제공해서 놀라웠다. 도서관

이 생기면서 이렇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해주면서 생활이 훨씬 풍요로워졌다. 좋은 강의도 많이 듣게 되었고,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글쓰기 강좌도 덩달아 늘어서 내겐 편이나 유용하다. 프로그램이 좋고, 퇴근 후에 올 수 있도록 저녁 시간에 시작하니까, 젊은 사람들도 직장 끝나고 많이들 찾아오는 것 같다.

미술관장 출신이라는 강사가 진행한 5주짜리 미술강좌는 정말 만족스러웠다. 그냥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서 봤으면 그냥 스윽 보고 지나쳤을 작품을 상세한 해설로 듣게 되니까 작품이 다르게 보였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컴퓨터나 태블릿 PC로 그 작품들을 찾아보기도 한다. 간혹 강의 듣고 미술관 다녀왔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컴퓨터로 보는 편이 작품을 훨씬 더 구석구석 세밀하게 볼 수 있어서 더 좋다.

그렇지만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모두가 다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언젠가 <길위의 인문학>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경복궁, 덕수궁 이런 데를 가면서 버스를 대절했다. 버스를 대절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결코 작지 않을 터인데, 경복궁에서 모이자고 해도 되고, 덕수궁으로 오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다 비용을 쓰는 걸 보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이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편이지만, 다른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가보면, 강사도 아주 훌륭하고 구성과 내용도 모두 좋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주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울 때가 많다. 매번 강의를 듣는 사람들만 듣지 그 폭이 좀처럼 확대가 되지 않는 것

같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나처럼 컴퓨터도 사용할 줄 알고, 정보 찾기에 익숙한 사람들이야 별 어려움이 없지만, 70대 노인들은 아무래도 그런 정보에 어두워서 많이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 노인들이 좀 더 프로그램을 잘 알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홍보를 제공해야 참석자들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간혹 강사가 수강생들의 바램과는 무관하게 자기가 작성한 커리큘럼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전에 들었던 사진 강좌가 그랬다. 나는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고 편집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강의에 참석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일반적인 개요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카메라의 종류에 대해서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었다. 사실 내가 카메라의 종류까지 다 알 필요는 없지 않나? 수강생들과 호흡을 맞추어서, 기본적인 내용은 빨리 가능한 빨리 끝내고, 수강생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융통성 있게 진행해야 하는 데, 이 선생은 자기가 짜온 프로그램을 그냥 그대로 진행해서 못 마땅했다.

이런 저런 소소한 불만들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도서관이 있어서 재미있는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도서관은 내 생활의 중요한 일부이다. 컴퓨터도 사용할 수 있고,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빌려갈 수도 있고, 친구들을 만나서 글쓰기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소중한 보물 창고이다. 짬짬이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서 활용하는, 남들은 잘 모르는 내 시간의 창고이다. 세상에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가고 싶은 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가끔씩 도서관이 휴관하는 날인 줄도 모르고 왔다

가 허탕을 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도서관을 오가다 보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진다. 매일매일 일정에 따라 동선을 정하고, 이리저리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생활의 활력이 된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내게 꿈꿀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는, 아직도 주인공으로 나를 반겨주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다. 이런 도서관이 곳곳에 있다는 것은 내게는 커다란 행운이고 큰 기쁨이다. 도서관이 있어서 정말 좋다.

4.3 노년을 견디는 위안의 원천 (김유정의 내러티브)

관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매일 같이 도서관에 나오고 있는 늙은이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도서관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도서관은 제 일상을 떠받들어주는 아주 커다란 기둥입니다. 아침마다 집을 나서면서 도서관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는 1934년 황해도 연백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연백군은 지금은 북한 땅이 되어버렸지만, 38선 이남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서 휴전이 되기 전까지는 남한 땅이었습니다. 강화도에서 보면 바다 건너로 고향 마을이 보인답니다. 6·25 때 저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서울로 유학을 와 있었습니다. 계동에 있는 중앙중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을 때였지요. 피난 갈 틈도 없이 서울이 인민군의 손아귀에 넘어 가버렸고, 걸어서 고향마을로 돌아가서 다행히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4후퇴 때 고향마을을 다시 인민군이 점령하면서, 아버지와 저만 겨우 강화도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

니와 나머지 형제들은 결국 나오지 못하고 고향에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쟁 중에 가족을 잃고 이산가족으로 살아왔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봉 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어머니와 가족들의 생사조차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인천에서의 피난생활을 끝내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복학을 했고, 그렇게 겨우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2년여의 공백 끝에 다시 학교로 돌아갔지만, 전쟁 중의 공백과 혼란이 너무 커서 공부에 매진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어려워진 가정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군에 입대를 했고, 카투사로 배속을 받아 미군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카투사로 근무한 것이 인연이 되어서 제대 후에 곧바로 미군부대 종사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헌병대에서 미군들에게 통역을 해주거나 문서를 번역하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교통사고나 부대 내외에서 벌어진 경범죄들을 조사해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60세 정년이 될 때까지 쭉 그 일을 했고, 정년을 하고 나서도 1년씩 연장근무 계약을 해서 10년 이상을 더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거의 40년이 넘도록 다니던 직장을 막상 그만 두고 나니, 무엇을 하면서 지내야 할지 참 막막했습니다. 직장 동료 하나가 은퇴를 하고 나서 서예를 한다고 해서, 저도 몇 번 따라 가봤습니다. 붓이랑 베틀과 먹도 사서 며칠 연습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하다 보니 글씨 쓰는 것도 나름 재능이 필요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중도에 포기해 버리고, 어떻게 하면 시간을 적절하게 보낼 수 있을까 다시 고민

했습니다. 그 친구가 독서가 제일 좋을 것 같다고 권하면서, 평생학습관에 나가보라고 추천해주었습니다. 마침 아내와 함께 도서관에 올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무렵 연희동에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홍대 앞에 있는 평생학습관에서 수영을 배우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따라 그곳에 가서 강습이 끝나기를 기다리던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도서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기다리는 동안 도서관에서 이메일도 하고, 신문도 보고, 책도 빌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집에서 가깝고 다니기에도 안성맞춤이어서 자주 그곳을 이용했습니다.

이곳을 알게 된 것은 옆에 있는 노인복지관 덕분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뇌병변 장애인들을 돌보는 자원봉사활동에 2년 정도 참여하면서, 이곳에 도서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센터만 있는 줄로 잘못 알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도서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저에게 필요한 것들은 모두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 잘 되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때부터 복지관에 갈 일이 있으면 이곳에도 꼭 들르게 되었고, 이제는 거의 매일 도서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또래들의 대부분은 어려서도, 젊어서도 도서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전쟁 전후이니 먹고 살기에도 무척 바쁜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도서관은 찾아보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생활이 조금 안정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가끔씩 서점을 방문해서 이런 저런 책들을 살펴보고 구입해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직장에 함께 근무하던 사람 가운데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책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곤 했습니다. 저는

배운 것도 그리 많지 않다보니, 책이라도 좀 보면 그래도 나올 것 같은 생각에 가능하면 책과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편이었습니다. 50대 때 읽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셨던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를 구입해서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책은 금서였는데, 숙대 앞에 있는 서점에 들러서 몰래 감춰놓고 파는 걸 구입해서 읽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중국과 국교를 맺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웃나라 중국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리영희 교수님 책은 최근에 나온 <대화>까지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요즘도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면 가끔씩 서점에 들러서 새로 나온 책들을 둘러 보곤 합니다.

저는 보통 9시 30분 정도 되면 도서관에 도착합니다. 도서관 디지털자료실에서 컴퓨터로 신문을 살펴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봐도 됩니다.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새벽에 일찍 잠을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누워 있으면 여러 가지 잡념도 많아지고 해서, 사실 아침엔 집 앞에 있는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갔다가 집에서 아침 먹고 도서관에 나오면 대략 그 시간이 됩니다. 도서관에 오면 제일 먼저 디지털자료실에 갑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의 그날 나온 신문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종이로 나온 신문을 봤지만, 이제 글자가 작아서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컴퓨터로 글자를 확대해서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미군 부대에 근무하던 시절부터 사용했던 터라 사용하는 데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미국에 있는 친구와 이메일

을 주고받는 것도 일상의 작은 기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다가 종합자료실로 자리를 옮겨서 이런 저런 책들을 찾아서 봅니다. 저야 뭐 그리 배운 것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전문 분야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눈에 띄는 책들을 두서없이 살펴보는 편입니다. 가볍게 소설책을 보기도 하고, 최근에는 심리학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찾아보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나이를 많이 먹다보니 점점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고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서 요즘에는 심리학과 관련되는 책들을 부쩍 찾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제 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없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만날 수 있는 각별한 친구들이 몇 사람 남아 있지만, 아무래도 먼저 간 사람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소식이 끊기는 경우도 차츰 많아집니다. 나중에 타계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병환중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는 아내도 병이 깊어져서 요양원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이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나 웰다잉(well dying)에 관한 책들을 찾아서 읽게 됩니다. 언론에서는 백세 시대가 축복인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사실 친구들을 만나면 모두 '아유,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80세가 넘어가면서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점점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중학교 때 스승님이셨던 김형석 교수님께서 열

마 전에 내신 <백 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에 보면, 60세서 75세까지는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인생에서 가장 원숙한 시절이지만, 80세가 넘어가면 아무래도 좀 어려워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구청에서 통역 자원봉사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가 힘에 부쳐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만 둔지가 벌써 꽤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육체적인 힘이 쇠약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마음도 함께 위축되어 갑니다. 일전에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인문학 강좌에 참석하러 갔었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금태섭이라는 변호사가 강사로 나오는 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참석해서 보니, 나이가 든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거의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앉아서 강의를 듣는 내내 나 같은 늙은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부터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걱정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버렸고, 남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몸져누워 있으니 자꾸만 허전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 저는 또래들에 비해서 양호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날이 갈수록 내 몸이 점점 더 쇠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아내마저 병으로 집을 떠나고 보니, 훨

씬 더 외로움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누구 하나 따뜻하게 제 마음을 붙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 딸과 함께 살고 있지만, 저대로 살기에 바쁘다보니, 이런 제 마음을 살뜰하게 살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기대하거나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은 내가 딸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견잡을 수 없이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도서관에 나오게 됩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삼시 세끼 식사를 챙기는 일도 딸에게는 큰 부담일 겁니다. 애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집에서 나옵니다. 일단 나오게 되면 걸으면서 하늘도 보고, 자연도 보고 하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점점 쇠약해져 가는 몸을 이끌고도 매일 같이 도서관에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집에서 아무 일 없이 시간을 보내노라면 우울한 생각들이 저를 지배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제 자신이 피폐해져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도서관에 나와서 신문을 찾아보고, 이메일을 주고받고, 책을 읽고 있으면, 이런 번잡한 상념들이 저를 공격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도서관과 책읽기는 저에게 커다란 위안입니다. 일종의 신경안정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책 속에 담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읽고 있을 때에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좀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도서관에 나와서 책을 읽고, 집으로 돌아갈 때 몇 권씩 책을 빌려가는 생활을 반복하는 것이겠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저 없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환영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나를 받아주는 공간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요?

도서관에 자주 나오면서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노인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매일 같이 도서관에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와 비슷한 취미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묘한 연대의식과 동질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훌쩍 많이 들어서 만나는 사이이고, 특별히 공유하는 일이나 관심사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렇게 친밀한 사이로 발전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도서관에 들어오면서 눈이라도 마주치게 되면 가벼운 목례도 주고받고, 며칠 만에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니냐고 가벼운 안부 정도는 챙겨 묻는 사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몇몇과는 간혹 서로 시간이 허락할 때에는 복지관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서로의 사생활에 관한 깊은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지만 그런 소소한 만남들이 가져주는 결코 작지 않은 위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휴관하는 화요일이 무척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가끔 다른 도서관을 가기도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막막해지기도 하지요. 간혹 어린 아이처럼 화요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엉뚱한 투정을 부려 보기까지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렇게 사소한 것에 감동받거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어느 날 도서관 서가에서 돋보기가 달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점점 눈이 어두워져서 간단한 서류를 하나 작성하려고 해도 돋보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방에 돋보기를 꼭 챙겨서 다니곤 합니다. 제게는 필요 없는 물건이었지만, 노인들

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적잖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침 돋보기 옆에는 노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큰활자로 된 책도 있어서 보기에 훨씬 더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이런 아주 사소한 배려들이 도서관으로 노인들을 불러들이는 것이겠지요.

반대로 조금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과 마찬가지로 귀도 점점 어두워집니다. 작은 소리는 잘 들리지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참 많지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니, 이야기를 할 때에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도서관이라는 곳이 좀 조용히 지내야 하는 공간이다 보니, 간혹 친구들에게 전화가 오거나 하면 당황하게 됩니다. 저는 얼른 자료실 밖으로 나가서 계단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도서관에서 마주치는 노인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도서관 내에 노인들이 좀 큰 소리로 이야기해도 주위의 눈총을 받지 않는 그런 공간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인들끼리는 말소리도 크고 그렇게 되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인전용 휴게실 같은 걸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듭니다.

일 년 하나쯤은 노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어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처럼 도서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대부분은 뭐 대단한 연구나 공부를 하려고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워서, 심심해서, 아니면 더워서 혹은 추워서 그냥 잠시 머물거나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도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신문이라도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방문하는 것이겠지요. 아마

도 이런 사소한 것들이 노인들이 도서관을 방문하는 동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노인들에게 그런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라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바로 도서관이 노인들을 배려하고 있고, 관심을 두고 있다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심과 배려가 노인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노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라고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 버렸습니다. 아무튼 저에게 도서관은 제 힘겨운 노년을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 크나큰 위안이고, 원천입니다. 보르헤스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같은 천국이고, 최고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알뜰살뜰 도서관을 운영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애쓰시는 사서들에게 언젠가 작은 음료라도 하나 건네면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무척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김유정 드림

5. 논의와 맺음: 책읽기를 통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장소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세 사람의 은퇴 노인의 도서관 이용방법은 모두 제각각이다. 염상섭은 도서관 열람실에서 주로 책을 보면서, 김유정은 디지털자료실에서 신문을 검색하고, 이

메일을 보내면서 시간을 보낸다. 노천명은 디지털자료실에서 원고를 작성하고, 동아리 활동과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매우 다채롭고 활력 있게 도서관을 이용한다. 책을 읽는 방법과 장소도 모두 제각각이다. 염상섭이 오로지 도서관에서만 책을 읽는 것과는 달리 김유정과 노천명은 책을 대출해서 집으로 가져간다. 심지어 노천명은 도서관에서는 책 읽는 데 집중하기가 어려워서 주로 집에서 책을 읽는다. 본인들의 관심사에 따라 경제학, 동화, 심리학 등 읽는 책의 종류도 다양각색이다. 이렇게 제각각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과 보는 책이 달라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놓인 3차원적인 탐구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은 각자에게 상당히 상이한 공간이다. 각자가 처한 경제적, 사회적, 실존적 상황들이 모두 다르고, 각자가 살아온 과거의 삶은 온전하게 공유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까닭에 이들이 도서관 이용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의미의 구체적인 양상도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염상섭에게 도서관은 규칙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종의 거점 공간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그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무료함을 이기고, 노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는 도서관을 거점으로 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경제학 서적을 읽고, 컴퓨터를 배우면서 세상의 변화에 그런대로 적응하면서, 자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병행한다. 동화작가를 꿈꾸는 노천명에게 도서

관은 재미있는 읽을거리와 편의시설을 제공해주고, 글쓰기 친구들을 만나서 크고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성장의 공간이다. 도서관은 재미와 활력으로 가득 찬 보물창고이고, 노년에도 저물지 않는 새로운 꿈을 위한 성장의 발판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한편 김유정에게 도서관은 점점 쇠약해지는 몸과 마음을 지탱하고, 노년의 고독과 무료함을 견디기 위한 치유와 위안의 공간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친구와 주고받는 메일, 책읽기, 같은 처지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노인들과의 사소한 만남을 통해서 노년의 고독과 맞서고 삶의 위안을 구한다.

이렇게 도서관 이용 경험의 구체적인 양상과 그 의미는 각자에게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속에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도서관이라는 장소와 은퇴 노인이라는 현재의 고유한 상황이 제공하는 공통점일 것이다.

먼저 책읽기이다. 이들의 경험 속에 모두 공통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책읽기이다. 이 이야기들이 도서관이라는 장소를 배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책읽기가 공통의 경험이라는 점은 딱히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주목할 것은 이들이 모두 과거부터 책읽기를 지속해 왔다는 점이다. 은퇴 이후 갑작스럽게 책읽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도서관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젊어서 부터의 지속적인 독서가 이들을 도서관으로 이끌고 있다. 과거의 책읽기와 그 효용에 관한 경험이 바로 그들을 도서관을 찾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인 것이다. 그렇지만 책읽기의 구체적인 양상과 현재적인 효용은 이들이 처한 실존적 상황과 지향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때로는 무료함을 견디

는 수단이 되고, 새로운 꿈을 위한 도전이 되고, 불필요한 상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수단이 된다. 이들에게 책읽기는 특별한 용도를 지닌 전문지식이나 정보 찾기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책읽기는 언제나 자신이 필요할 때 아무런 장애 없이 기꺼이 만날 수 있는 편안한 친구일 뿐이다. 무료한 시간을 견디고, 새로운 꿈을 꾸면서 재미를 느끼고, 심리적 위안을 나누며 일상을 함께하는 삶의 가장 친근한 동반자인 것이다.

둘째, 도서관이 갖는 장소로서의 특별한 의미이다. 이들이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또한 별로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러나 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이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특정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집에서 장소로서의 의미는 보다 세심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도서관은 책을 읽고, 빌리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문화강좌에 참여하는 단순한 기능적인 공간이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하지 않고, 주저 없이 찾아가고,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가서 머무는 생활의 중심이고 거점이다. 이 거점공간은 정기적으로 출근할 곳이 사라져버린 은퇴 후의 막막함과 상실감을 메워주고, 아직도 자신이 세상 속에 충분히 연결되어 있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음을 알려주는 일종의 사회적인 자리이다. 그 거점 공간에서 이들이 실제로 행하는 일은 매우 다양하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찾아서 읽고, 흥미로운 주제의 강의를 수강하고, 비슷한 처지의 또래나 동아리 구성원을 만난다. 신문을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파악하고, 옛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이들을 세상과 연결시켜 주는 아슬아슬

한 끈이 된다. 그것은 자신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심리적 위안과 안정을 제공한다. 도서관은 스스로가 하나의 명백한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만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물적 기반을 제공하는 아주 특별한 장소이다.

셋째, 건강한 삶을 향한 열망과 분투이다. 이들이 도서관을 찾아와서 행하는 구체적인 활동의 양상들은 모두 상이하지만, 이 모든 활동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바로 건강한 삶이다.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은 도서관을 찾아오고, 책을 읽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정해진 시간에 도서관에 나오고, 이런저런 활동을 통해서 신체의 건강한 리듬을 유지한다. 도서관을 오고가는 과정 자체가 이들에게는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운동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도서관을 통해서 이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신체적인 건강보다는 오히려 정신적인 요소들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 노년을 위협하는 무료함, 고독감, 공허감, 상실감, 무력감은 도서관에서 책 읽기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완화되거나 사라져 버린다. 적어도 책 읽기에 집중하는 시간 동안에는 이러한 불쾌한 감정들이 밀려오지는 않는다. 소극적으로는 노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쾌한 감정과 상념들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켜 주는 일종의 방어수단으로 작용한다. 좀 더 적극적인 경우에는 새로운 꿈과 성장을 꿈꾸는 활력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들이 매일같이 도서관에 나와서 궁극적으로 찾고 있는 것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두 건강한 삶이다. 건강한 삶에 대한 열망과 회구가 이들을 도

서관으로 이끌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다. 쇠잔해지는 몸을 이끌고 도서관에 나와서 책을 읽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문화프로그램과 동아리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바로 건강한 삶을 위한 분투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 분투의 과정에서 책은 언제나 손을 내밀면 닿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친구와 동료가 되어주고, 도서관은 그런 친구와 각종 기반을 제공해주는 물적 토대가 된다.

신불리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의 이야기 속에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개선점들이 담겨 있기도 하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할 점은 은퇴 노인에 관한 서비스에서도 노인들의 건강과 연령에 따라서 상이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에게 가장 고통에 해당하는 김유정의 경우에는 염상섭이나 노천명과 다르게 건강 상태에 자신이 없고, 죽음에 관한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모습을 보여준다. 김형석(2016)에 따르면 노년이라고 하더라도 70대와 80대는 확연히 구별되는 시기라고 한다. 비교적 건강 상태가 양호할 수 있는 70대 이전까지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시기이지만, 신체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하는 80대 이후는 이전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시기라는 이야기이다. 도서관의 서비스에서도 이런 신체적, 정서적 건강 상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특별한 불편함 없이 신체와 정신 활동이 가능한 시기와 그 모든 것들이 힘겨워지고 점점 위축되는 시기의 노인들이 원하는 것이 서로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체 활동이 자유로운 80대 이전의 노인들을 대상으로는 좀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

고, 삶의 주체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신체 활동이 부자유스러워지기 시작하는 80대 이후의 노인들에게는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통한 배려가 필요하고, 아울러 이들이 평온하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제언해 본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은퇴 노인들이 어떤 목적과 모습으로 도서관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조금은 입체적이고,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은퇴한 노인들의 도서관 이용 경험이 각자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조금은 확장할 수 있었다. 이 이

야기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은퇴 노인들의 모든 경험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도서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경험에 가진 다양한 가능성 가운데 몇 가지를 프로토타입으로 살펴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프로토타입 속에는 도서관이라는 사회적인 서비스가 지니는 가치와 의미를 포함해서, 은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개선의 방향 등 다양한 함의와 시사점이 담겨 있다. 이 이야기들과 연구는 은퇴노인들과 더불어 다시 도서관에서 생활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살아내고, 도서관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꾸어 가면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을 찾는 은퇴 노인들의 느린 걸음이 보다 다채롭고 풍성한 이야기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고정원 (2015). 비행청소년들의 탈비행과정에 미친 독서상담의 효과: 내러티브탐구에 의한 종단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대현 (2006). 내러티브 탐구의 이론적 기반 탐색. *교육과정연구*, 24(2), 111-134.
- 김미진 (2015). 노인의 공공도서관 비이용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선호 (2002). 공공 도서관의 노인 서비스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4), 101-124.
- 김선호 (2003). 공공도서관의 노인용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3), 111-124.
- 김선호 (2004). 공공도서관의 노인편의증진시설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4), 167-178.
- 김은지 (2014). 공공도서관 노인 서비스 평가.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김은지, 이성신 (2014). 공공도서관 노인 서비스를 위한 제언.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2), 59-76.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4.25.2.059>
- 김형석 (2016). 백년을 살아보니. 서울: 텐스토리.
- 노경주 (2014). 어르신들의 공공도서관 이용 요인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박옥화 (2007). 공공도서관 고령 이용자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1), 375-396.
- 송수인 (2014). 노년세대의 여가 스타일에 따른 정보이용행태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염지숙 (2003). 교육 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의 개념, 절차, 그리고 딜레마. 교육인류학연구, 6, 119-140.
- 오선혜, 이성숙 (2012). 공공도서관 시니어 이용자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1), 257-276. <https://doi.org/10.14699/kbiblia.2012.23.1.257>
- 이경미 (2014). 은퇴이후 노인의 정보행태조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명희, 김미초 (2010).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노인대상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3), 91-107.
- 이진영 (1998). 공공도서관의 노인 복지 봉사를 위한 연구. 도서관학논집, 27, 245-269.
- 이호신 (2012). 주제전문사서의 직업정체성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법학전문사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이호신 (2014). 문헌정보학 연구 방법으로서의 이야기: 내러티브 탐구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1), 149-172. <http://dx.doi.org/10.4275/KSLIS.2015.49.1.149>
- Clandinin, D. (2007). Handbook of narrative inquiry: Mapping a methodology. Thousand Oaks, Cali: Sage Publications. <https://doi.org/10.4135/9781452226552>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Ewbank, A. D. (2005). Literature-based instruction and the role of teacher-librarian as readers' advisor: A teacher research study. Doctoral Dissertation, Arizona State University.
- Farmer, L. S. J. (2004). Narrative inquiry as a assessment tool: A Course case study. Journal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45(4), 340-51.
- Jones, S. A. (2010). The occupational choice of school librarians. Library Trends, 59, 21.
- Kimmel Su (2013). Stone soup: A story about using story for research. School Libraries Worldwide, 19(2), 1-11.
- Ricouer, P. (1984). Time and narrative,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김한식, 이경래 공역. (1999). 시간과 이야기1. 서울: 문학과지성사.
- Ricouer, P. (1984). Time and narrative,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김한식, 이경래 공역. (1999). 시간과 이야기2. 서울: 문학과지성사.
- Riessmann, C. K. (1993). Narrative analysis. London: Sage. 김원옥 외 역. (2005). 내러티브 분석. 서울: 군자출판사.
- Sandford, D. W. (2013). Construction of professional identity in novice library media specialists.

Doctoral Dissertations, Georgia State University.

Stephanie, A. J. (2010). The occupational choice of school librarians. *Library Trends*, 59, 166-187.

Walter, S. (2008). Librarians as teachers: A qualitative inquiry into professional identity.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9(1), 51-71. <https://doi.org/10.5860/crl.69.1.51>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Kim, Dae Hyun (2006). The study on the epistemological and ontological background of narrative inquiry.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4(2), 111-134.

Kim, Eunji (2014). Elderly services evaluation in public libraries. Master's Thesis, Kyongb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Kim, Eunji, & Lee, Seongsin (2014). Recommendations on the public library services for o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2), 59-76.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4.25.2.059>

Kim, Hyeongsuk (2016). *Living a hundred years*. Seoul: DenStory.

Kim, Mijin (2015). A study on factors to the non-use of the seniors in public librarie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im, Sun-Ho (2002). The study on the policies for public library services to older person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ociety*, 33(4), 101-124.

Kim, Sun-Ho (2003). A study on the interface design of the public library for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ociety*, 34(3), 111-124.

Kim, Sun-Ho (2004). A study on the facilities for old persons in the public library building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4), 167-178.

Ko, Jung Won (2015). The effects of biblio-counseling on the process of desistance from juvenile delinquency: A longitudinal study of narrative inquiry. Doctoral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Lee, Hosin (2012). Narrative inquiry on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subject specialist: Focusing on law librarians. Doctoral Dissertation, Seo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Lee, Hosin (2014). Narrative inquiry, as a research methodolog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1), 149-172. <http://dx.doi.org/10.4275/KSLIS.2015.49.1.149>

Lee, Jin-Young (1998). The welfare service of public libraries for aged person. *Journal of Korean*

- Library and Information Society, 27, 245-269.
- Lee, Kyung Mi (2014). A study on the information behavior of the post-retirement elderly: Focusing on library accessibility.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Lee, Myeong-Hee, & Kim, Mi-Cho (2010). A study on the services of senior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1(3), 91-107.
- Noh, Kyoung-Joo (2014). A study on the factors of public library use and the effects on the quality of life of older adults. Master's Thesis, Seo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 Oh, Sun-Hye, & Lee, Sung-Sook (2012). A study on the library anxiety of public library senior user.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1), 257-276. <https://doi.org/10.14699/kbiblia.2012.23.1.257>
- Park, Ok-Wha (2007). A study on the elderly of public librarie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ociety*, 38(1), 375-396.
- Sin, Gyongrim (2004). *Qualitative research*.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Song, Suin (2014). A study on th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according to the leisure styles of the aging generation.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Yeom, Ji-Sook (2003). The concept, procedure, and dilemmas - narrative inquiry in educational research. *Anthropology of Education*, 6, 119-140.